

방학

김용택

학교는 뭘 할까

운동장은 뭘 할까

교실은 뭘 할까

내 책상 내 의자는 지금 뭘 할까

미끄럼틀 철봉은 서서 뭘 할까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내 짝은 숙제 다 했을까

학교는 지금 뭘 할까

사랑하는 유하, 산희, 민준, 율, 은성아~~~~

안녕~ 징검다리야.

산학교에서 처음 맞는 방학이네.

처음 방학을 맞는 기분이 어때? 작년보다 방학기간이 짧긴 하지만 한 학기동안 공부하고 놀고 싸우고 먹고 똥도 싸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 그래서 방학동안 잠도 많이 자고 텅굴텅굴 굴러도 다니고 엄마 아빠랑 밤산책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

올 해는 처음 1,2,3학년이 다같이 지내는 통합반이라서 조금 걱정 했는데 징검이 걱정했던 것 보다 1,2,3학년들이 훨씬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 참 안심이 되고 유하, 산희, 민준, 율, 은성이에게도 많이 고마웠어.

지난 주에 한 학기동안 산학교 다니면서 즐거웠던 점, 힘들었던 점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들의 한 학기 지냈던 모습이 징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 속상하고 어이없고(이건 너희들 표현이었지?^^)화가 나기도 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재밌고 웃기고 신나고 열심히 지냈던 순간들도 많았지? 그 모든 시간들이 유하, 산희, 민준, 율, 은성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몸도 마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밑거름이 될거야.

방학에 실컷 놀다가 심심하면 숙제도 조금 하고,

그래도 심심하면 징검한테 편지도 쓰고,

참, 징검 집에 모여서 팔빙수 먹기로 한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지? 민준이는 팔빙수의 팔은 꼭 빼달라고 했잖아~^^

그럼 여름 방학 잘 지내고 찬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똥찌지직 설사 하고 배 아프니까 조금만 먹고~ 사랑해. 유하, 산희, 민준, 율, 은성~

< 여름 방학 숙제 >

1. 일찍 자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기

처음부터 너무 쉬운 숙제를 냈지? 이 숙제는 모두모두 잘 할 수 있지요?^^

2. 자기가 먹은 밥그릇 싱크대 갖다놓고 부모님께 “맛있게 먹었어” 인사하기

이 숙제도 너무너무 쉽지? 학교에서처럼 설거지도 하면 좋고 설거지가 어렵다면 밥 먹은 그릇 싱크대 안에 넣고 식사 준비해주는 부모님께 인사하기

3. 자음, 모음 구별해서 색칠하기(14장)

4. 수학(가르기 모으기, 덧셈뺄셈, 칠교)(25장)

5. 그림책 읽기(10권 읽기) 혹은 이야기 듣기

1학기 때 읽었던 옛이야기 그림책을 읽어도 되고, 읽고 싶은 그림책을 읽어도 좋아.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옛이야기나 엄마, 아빠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도 좋고. 1학기에 읽었던 그림책을 읽었으면 읽은 날짜를 쓰고 너희들이 읽고 싶은 그림책을 읽었다면 빈 칸에 제목을 쓰고 읽은 날짜를 쓰면 되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들은 옛이야기나 어릴 적 이야기도 빈 칸에 제목을 쓰면 되겠다. 엄마, 아빠 어릴 적 이야기의 제목은 너희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제목을 한 번 지어서 써보도록 하기.

3. 그림책 읽기(10권)/ 이야기 듣기

제목	읽은 날짜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한국)	
박타령(한국)	
재미네골(중국 길림성 조선족)	
땅속나라 도둑괴물(한국)	
바람이 훅, 바람이 싹(스위스)	
설탕으로 만든 사람(그리스)	
바바야가 할머니(러시아)	
이야기 이야기(아프리카)	

제목	읽은(들은) 날짜